

축산물 안전성 홍보에 힘써야



전재수

(주)우성양행 수의사

월간 낙농육우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고름 우유 파동에서부터 한보 사태, 김 현철 비리 사건등 내·외적인 엄청난 환경의 변화속에서도 끊임없이 전국의 낙농 육우인을 위하여 힘써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협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낙농 제도의 개편, 배합사료 영세율 추진, 배합사료 가격인하, 소값 안정 대책, 분유 소진 대책, 농지법 개정 및 축산 분뇨 처리 대책 등 낙농 육우 산업의 누적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낙농 육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생산자, 생

산자 단체, 협회 및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훨씬 유리한 외국 축산물과 가격 경쟁을 극복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限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낙농 육우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고름우유 파동 및 0-157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만이 우리 축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국의 값 비싼 축산물보다 우리 양축가의 손의로 생산하여 공급한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신도불이(身土不二)의 정신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우유와 고기를 먹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회원들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 산업의 경우, 유방염 및 착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체세포수 및 세균수가 일등급인 원유를 생산하고, 산유 능력이 우수하고 혈통이 확실한 젖소를 개량한다면 자연적으로 유량이 증대되고, 원유의 품질이 향상되어 농장의 수익이

향상될뿐더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그 결과로 우유의 소비를 촉진하여 낙농 산업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고 축산업의 한 분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비육우 산업의 경우 위생적이며, 고품질(고급육)의 한우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외국 쇠고기와 차별화를 기하고, 또 다른 수요층을 형성한다면 외국 쇠고기에 대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품질의 고급화 위생 수준의 강화, 생산 기술의 향상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우 산업이 생존하는 초석(礎石)이 될 것입니다.

우유와 쇠고기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생각하고 소비자의 우유와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랑을 받을 때만이 낙농 육우산업은 국민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낙농육우산업이 국제 경쟁력은 위생적인 품질과 고급육에 대한 생산 기술향상, 생산비 감소,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 또는 홍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낙농육우 협회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협회는 낙농 육우인을 바탕으로서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낙농 육우인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때 협회와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